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달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441 | 511 | 496 | 77 |
| (주의 나라 임하면) |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주 천주의 권능과) |

제 1독서 | 신명기 18,15-20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좌)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우)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
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좌)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
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
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7,32-3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21-28

영성체 후 묵상 |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 세상일을 걱정하며 살아
갑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가 기원한 대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
의 일을 마음 속에 품으며 살아갑니다.

Today's Gospel Reading <Mark 1:21-28>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as far as Capernaum, and as soon as the sabbath came he went 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And his teaching made a deep impression on them because, unlike the scribes, he taught them with authority.

In their synagogue just then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n unclean spirit and it shouted,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But Jesus said sharply, 'Be quiet! Come out of him!' And the unclean spirit threw the man into convulsions and with a loud cry went out of him. The people were so astonished that they started asking each other what it all meant. 'Here is a teaching that is new' they said 'and with authority behind it: he gives orders even to unclean spirits and they obey him.' And his reputation rapidly spread everywhere, through all the surrounding Galilean countryside.

<Short Reflection>



In the gospel reading, we hear the story of a man who was possessed by an unclean spirit. It made him address Jesus in very aggressive tones,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Here we can recognize what the devil's plans are. The first plan of the unclean spirit is to make people think that Jesus Christ is someone irrelevant to their lives. And the second plan is to make people believe that Jesus came to destroy and condemn us, making our lives difficult." The devil always tempts us to in order to separate us from God.

Against the unclean spirit, Jesus does not enter into dialogue, and he just says 'Be quiet! Come out of him!' Jesus knew that the voice of the

spirit speaking through this poor man was not the man's real voice. Christ was aware that it was not the man's true self that he was encountering. Rather than being offended by this man, Jesus set about the work of healing him and delivering him from this unclean spirit. Jesus restored his true self. After Jesus engaged him, the man was himself again. He was free from his devils inside.

Today's Gospel teaches us that we should not engage in dialogue with the devil; rather, we have to depend on the Lord, who has the power to restore our true selves.

Jesus Christ is our light, and our savior. What he did for this man, he can do for all of us. The same Jesus who spoke with authority in the synagogue is alive among us as risen Lord. The powerful, life-giving word that Jesus addressed to that man he continues to address to each of us.

Let us allow the word of the Lord to penetrate our hearts so that he can silence the temptations of devil. Of course it is not easy, but through him, with Him, and in him, we can overcome the temptation. Our Lord will heal us as he gave new life to a very disturbed person in today's Gospel.



교황님과 함께하는 교리 교육 - '악덕과 미덕 - 음욕'

고대 교부들은 식탐 다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두 번째 “악마”, 곧 두 번째 악덕이 ‘음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식탐은 음식에 대한 탐욕인 반면, 이 두 번째 악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탐욕”, 특히 성적 영역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고 있는 해로운 유대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약혼한 연인 사이의 멋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성의 매우 아름다운 차원인 성적 차원과 사랑의 차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1코린 5,1). 바오로의 질책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것을 건강하지 않게 다루는 문제와 정확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 곧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살펴봅시다. 사랑에 빠지는 신비스러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서 왜 그토록 강렬한 경험이 되는지 우리 중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일은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놀라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악덕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장 순수한 인간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편지와 시를 쓰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더라도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모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렬한 사랑이 다소 순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잘 모르더라도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하는 약속을 기꺼이 행합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이 넘치는 이 “동산”은 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음욕이라는 악마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음욕이라는 이 악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특히 끔찍합니다.

첫째, 음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만으로도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시작된 관계가 상대방을 소유하는 관계, 존경과 경계심이 없는 해로운 관계로 변질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순결이 결여된 사랑입니다. 순결이라는 미덕을 성

적 금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결은 상대방을 절대 소유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 나의 것이 아닌 상대방의 몸, 심리, 영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음욕은 이 모든 것을 조롱합니다. 음욕은 약탈하고, 앓아가고, 서둘러 소비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요구와 쾌락에만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음욕은 모든 사랑 표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존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성, 충동, 감정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음욕을 품은 사람은 지름길만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여정이 느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루함과 동의어가 아닌 이러한 인내심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음욕이 위험한 악덕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쾌락 중에서도 성적 쾌락은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감각과 얽혀 있는 성적 쾌락은 몸과 마음 모두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지만 성적 쾌락이 인내로 훈련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이를 사랑의 춤으로 바꾸는 관계와 역사 안에 새겨 넣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사슬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적 쾌락은 관계가 누락된 만족감, 곧 중독 같은 형태를 낳을 수 있는 음란물에 의해 훼손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사랑,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순수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음욕과 타인을 성적으로 “사물화”하는 것과 맞서 싸우는 일은 평생 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받을 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느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생각하며 피조물에 아로새기신 아름다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모험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함께 역사를 만드는 게 낫다고 - 세상에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 소유의 악마에게 굴복하는 것보다는 애뜻한 사랑을 함양하는 게 낫다고 -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 정복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끕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슬프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지 사항

1. 설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1일(주일)에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은인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전 30분전부터 연도(짧은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와 연도 때의 지향 신청 안내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성전 입구 테이블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세례명)을 기재 후 교무금함에 2월 4일(주일)까지 제출

2. 재의 수요일 미사 및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 미사 : 2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 재의 수요일에 사용될 성지가지를 성전 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2월 11일(주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드니 한인성당 - 온라인 그룹성경공부 안내

- 과목: 마르코, 요한, 루카복음

| 미사 참례자 수 |

| | | |
|------|-------------|---------|
| 1/14 | 유아·청소년: 15명 | 성인: 46명 |
| 1/21 | 유아·청소년: 12명 | 성인: 42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 |
| P/W: 69g58g | |

| 전례 독서 봉사자 |

| | |
|------------|------------------|
| 이번주 (1/28) |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 다음주 (2/4) |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

| 미사 후 뒷정리 |

| | |
|------------|------|
| 이번주 (1/28) | 마태오반 |
| 다음주 (2/4) | 요한반 |

- 신청기간: 2월 18일까지
- 신청 및 문의: 이성희 안젤라 0433-050-333

4. 사순시기 1박 2일 피정 안내

주제: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4)

일시: 2월 24일(토), 13:00 ~ 25일(주일), 13:00

장소: St Clement's Retreat Centre,

Kalangan Rd, Galong NSW 2585

(개인 차량 혹은 카풀을 이용하여 이동)

참가비용: 개인당 \$120

(나머지 비용은 성당 지원)

참가대상: 18세 이상부터

참가인원: 총 40명까지

신청기한: 2월 5일(월), 12:00까지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교무금함에 제출

우측 링크 통하여 온라인 신청 =>

<https://forms.gle/makCA7sLVWS6DCyT9>



문의: 하단 성당 연락처

- 전 화: 0490-795-346

-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 우리들의 정성 | (1/20 ~ 1/26)

| | | | | |
|-------|-------|-----|-----|-----|
| 봉 헌 금 | \$205 | | | |
| 교 무 금 | \$520 | | | |
| 남궁영근 | 손재호 | 안영규 | 양홍석 | 윤현태 |
| 이국원 | 이지영 | 전인철 | 조성희 | 주정자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 서울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